

價格 · 原料



原料價 올라도 製品값 安定

尹 錫 雄
(每日經濟新聞社)

大量生産으로 製品價 安定

食品工業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제품가격은 그 어느 업종보다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같은 제품가격의 안정이 對內的으로는 물가안정을 뒷받침 하여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고 對外的으로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유지,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라면 · 제과 · 조미료등 각종 식품류는 지난 몇년동안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는데 비해 식품류의 주원료인 소맥 · 우지 · 부자재 등은 엄청나게 올랐다.

원료별로 보면 식품업체가 연간 5천4백만부대(22kg들이)를 소비하는 소맥이 최근 몇개월 사이에 28%나 올랐고 우지는 톤당 180\$선에서 438\$로 무려 243.3%나 폭등했다.

이밖에 포장지 · 상자등 기타 부자재도 평균 20%이상 뛰었다.

이에 반해 제품가격은 품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안정세를 보였다.

대중식량문제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라면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71년에 개당 19원50전에 판매토록 허용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지금까지 계속 19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食品제조업체들은 이같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원료를 절약하면서도 값싸고 營養價있는 食品을 생산, 內需와 수출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一般物價安定도 뒷받침

각종 食品가격이 이같이 몇해동안 계속 低水準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것은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저물가 정책에 호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업자들의 호응이 불가피한 韓國的인 이유는 엔겔 係數가 높다는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엔겔 係數는 地域, 所得階層, 季節 등에 따라서 큰 격차를 두고 있으며 근년에 이르러서 平均値가 낮아 지기는 하였으나 아직 50%선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므로 食品가격이 비싸진다는것은 國民生活의 安定性을 혼드는 큰 原因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근본적인 점에서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로서 80년대초에 연간 1백억 달러의 수출을 달성하고, 당면과제로서 올해 물가상승율을 3%선으로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책으로서 食品價格의 안정선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들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80년대초에 1백억달러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상품의 「코스트·푸쉬」요인을 극력 눌러야 하는데 그 일환책으로는 食品값이 저렴하게 안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올해 물가를 3%선에서 억제하기가 힘겨운 것은 다음과 같은 國際物價동향으로서도 실감할 수 있다.

OECD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4분기말까지의 지난 1년동안의 도매물가상승율이 「스페인」의 9.7%로 가장 높은것을 비롯하여 英·伊·日 등 모두가 9%이상, 「스위스」 8.4% 등이며 美國이 가장 낮은수준인 5.1%(4월말까지의 1년간 상승율은 6.2%)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난 5월말 현재 도매물가상승율이 전년말에 비해 2.6%(연간목표 3%), 서울 소비자물가가 0.67%씩 각각 상승, 앞으로 연말까지의 물가조절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케 하고 있다.

때문에 食品가격도 다른제품과 같이 안정시키는것은 意義가 있는것이라고 하겠다.

食品供給量 擴大 필요

한편 人口增加추세로 보아도 쌀·보리등 主穀供給力과에 關係에서 食品工業의 근대화를 통한 食品供給量 확대와 低水準에서의 가격안정이 촉구된다.

우리나라 人口는 최근 발표된 70년 10월 1일 현재로 3천1백43만5천명으로서 66년 동기에 비해 年平均 1.9%의 증가를 나타냈다.

55~60년의 2.9%, 61~66년의 2.7%에 비해 그 증가율이 둔화된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近年 外穀輸入依存度가 연간 수억달러(올해의경우 약 4억달러)에 달한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빚어진 異例的인 多額이라고 하더라도 되풀이 해온 不可抗力的인 天災가 앞으로는 없으리란 보장이 없고 보면 食糧의 自給自足目標年度가 또다시 延期될지도 모를 일이다.

또 쌀 增產목표등이 早期달성되어 수출을 하게 된다면 더욱 소망스러운 일이다.

비싼 쌀을 수출하고 값싼 소맥과 보리 등을 代替수입케 된다면 그만큼 國際收支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非米系統 食糧의 영양가치가 쌀보다도 優位에 있는만큼 工業過程을 통한 식품 소비가 확대되어야 할 이유는 複合的인 것이다.

그리고 특히 大都市 시민이 非米생활로 食生活개선을 一般에 示範해야 할 것이다.

이번 人口統計에 나타난바와 같이 서울인구는 5백20만명으로서 총인구의 18%에 해당하여 首都人口集中率이 세계 제 1위이다.

그러므로 서울시민이 食生活를 개선하면 비교적 짧은기간에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수 있을 것이다.

食品類의 都賣價格 (서울)

(單位: 원)

品 目	時 期	單 位	73. 6. 20	72. 6. 20	71. 6. 21
밀	(中)	100l	3,000	2,800	2,500
설	탕(精白)	15kg	2,550(第一)	2,650	71
		"	2,520(三養)	2,620	70
		"	2,500(大韓)	2,600	70
라	면(상자)	50個	955(三養)	930	930
		"	975(롯데)	920	920
뉴 슈 가		1kg	800	800	770
밀 가 루(1級)		袋	1,300(곰표)	1,020	830
당 면		3.75kg	750	550	420

註: ① 1970年 6月 20日은 日曜日이므로 價格調查 記錄이없어 21日分을 採擇하였음.

② 1971年度의 설탕값의 單位는 600g 임.

③ 1971年度의 밀가루값은 袋當 2級을 基準으로함.

食品價格의 안정추세와 施策 효과

小麥의 國際時勢 波動현상

우리나라 食料品の 과거 3년간의 도매시세의 변동율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밀가루등을 원료로 하는 食品시세는 대체적으로 안정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업자들이 저물가정책에 호응한데다 밀가루 가격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에서 나타난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4월말의 재정적자가 4백50억원에 달하였는데 그 主因은 소맥의 국제시세가 크게 오른데 기인한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소맥의 국제시세가 오른만큼 국내 밀가루값을 윤리케 된다면 이를 원료로하는 각종식품은 도저히 現時勢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또 食品값이 양등할때엔 그것이 諸般물가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것이므로 施策이 이에 留意하고 있는것이다.

食品工業의 主原料인 小麥 大豆등의 국제시세는 놀라울 만큼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소맥은 지난 5월말현재로 전년말에 비해 1백%상승(쌀은 95.9%)하였으며 6월30일에는 5월말에 비해 다시 28%나 급등하였다.

소맥의 국제시세가 이같이 폭등한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흉작(소맥이외 기타식량포함)이 될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그 인태로 올해 곡물의 대풍작이 예상된다는 소문이 小麥기타 곡물수입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짐을 들수있다.

美國務省추계에 의한 소련의 小麥수입계약량은 이미 1천6백만톤에 달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이수준을 훨씬 상회할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어쨌든 소련, 중공, 일본, 브라질, 아프리카의 西北部 여러나라가 모두 小麥수입을 경쟁하고 있으므로 올해의 小麥國際貿易量은 지난해 실제적인 5천3백만톤 보다 약 30%가 증가되는 7천만톤에 이를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닉슨」美大統領의 小麥수출규제가 앞으로 小麥의 國際 時勢를 부채질할 또하나의 원인이 될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小麥을 둘러싸고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는 一聯의 사태는 물가상승율을 國際常例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低食品價格을 견지하여야 할 우리에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또 今年度夏穀收穫에상망이 지난 6월 15일 1천6백30만섬으로 발표되었는데 이는 당초계획보다 1백만섬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것도 올해 輸入夏穀量을 늘려야 할 원인이 되고 있다.

價格유지를 政策面서 支援해야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쌀도매가격을 가마당 1만원에 동결시킨동시에 7백60만섬의 保有米를 뒷받침으로 전국 46개도시에서 가격을 가마당 1백원 내린 9천5백원으로 무제한 방출하고 있다.

쌀값이 싸게되면 粉食등으로 개선된 食生活이 후퇴하게 될른지 모른다는 異見이 없지도 않지만 우선 당면대책으로 米價의 안정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經濟政策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출상품의 가격상 國際競爭力의 강화를 위해서 食品工業의 近代化를 통한 食品價格안정화가 더욱 절실이 제고 되고 있다.

또 이와 병행, 食品가격을 低水準에서 안정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폭을 넓혀왔으며 그 폭

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마저 없지 않다.

食品工業의 주원료인 小麥國際時勢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工業「사이드」의 食品副原料값도 같은 실정에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다음과 같은 對策이 있어야 할것같다.

첫째, 小麥기타, 食品原料의 조기확보이다. 국제시세가 심하게 변동되자 이미 정부간에 합의되었던 식량일부의 공급기피를 당한 先例를 다시 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粉食업소에 稅制上 特惠를 주고 있는 효과를 참작, 밥과 粉食에 代用하는 食品(라면, 빵등 기타)을 진문적으로 판매하는 大規模업소의 신설을 장려하고 적절한 租稅혜택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셋째, 國際小麥가격의 高水準을 극복하고 現水準이 유지되게끔 代用食事に 충당될수 있는 食品製造業者(法人 및 個人企業)에 대해 稅制·金融上의 支援等이 연구검토돼야 할 것이다.

몇해전만 하더라도 農地로 개간할 수 있는 면적이 30만「헥타」로 추계 되었지만 그후 개간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15만「헥타」가 남아 있을뿐이다.

그러므로 개간, 米穀單位生産量 上昇등 綜合的인 對策이 주효해도 年間 米穀生産은 4천 내지 4천5백만섬을 초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에 一理가 있다고 한다면 加工食品에의 依存度를 높히는 生産의食生活로 改編을 서둘러야 할것이다.

이러한 정책면의 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식품 가격안정이 지속될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소맥·우지등 각종 원·부자재가격이 이미 최고 20%에서 최고 24.3%까지 올랐고 또 앞으로로도 계속 오를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